

韓國思想論文選集(129)

《實學의 文學思想》・《實學의 科學思想(1)》

金南馨,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文學論」, 『嶠南漢文學』 제2집, 1989.

金都鍊, 「古文의 源流와 性格 - 朝鮮後期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2집, 국민대, 1979.

金東浩, 「朝鮮後期 漢文短篇의 敘事構造」, 『漢文學』, 전주대, 1982.

金相洪, 「實學派의 文學觀 一斑」, 『동양학』 제16집, 단국대, 1986.

金智勇, 「實事求是文學의 推移」, 『國語國文學』 제28집, 1965.

성호경, 「조선후기 시가의 양식과 유형」, 『민족문화논총』 제13집, 영남대, 1992.

宋載邵, 「實學派文學에 나타난 民族意識」, 『문학과 비평』 제5호, 1988.

柳在泳, 「李朝後期 國語學에 공헌한 實學思想」, 『원광대논문집』 제5집, 1970.

李佑成, 「實學派의 文學」, 『국어국문학』 제16집, 국어국문학회, 1957.

林燐澤, 「實學思想과 現實主義 文學 - 언어표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원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 1990.

趙東一, 「朝鮮後期 人性論의 革新에 대한 文學의 反應」, 『한국문화』 제12집, 서울대, 1991.

鄭堯一, 「星湖와 湛軒의 文學理論」, 『동양학』 제17집, 단국대, 1987.

洪文杓, 「實學思想의 發展과 國文學의 近代化過程(I)」, 『關東大學論文集』 제4집, 1976.

洪一植, 「조선후기 敍事文學에 나타나는 身分觀의 변모양상」, 『민족문화연구』 제25집, 고려대, 1992.

姜信沆, 「黃胤錫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 『동방학지』 제71·72합집, 연세대, 1991.

金容雲, 「18세기 한국의 曆算 研究」, 『國學紀要』 제1집, 연세대, 1978.

金容憲, 「金錫文의 宇宙說과 그 哲學的 背景」, 『동양철학연구』 제15집, 동양철학연구회, 1995.

羅逸星, 「17·18世紀 韓國의 天文觀」, 『東方學志』 제21집, 1979.

羅逸星, 「17·18세기 李朝學者들이 理解한 歲差運動」, 『동방학지』 제22집, 연세대, 1979.